

# 미술의 거장 사로잡은 매혹의 색채

그림에 표현된 화가들의 색채 감각

화가들이 색채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인상주의 이후부터다. 그 이후 색채는 고정된 사물의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요소로 자리잡았다. 이제 색채는 화가들의 주관적 정신을 표현하고 가시적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기 위한 재료로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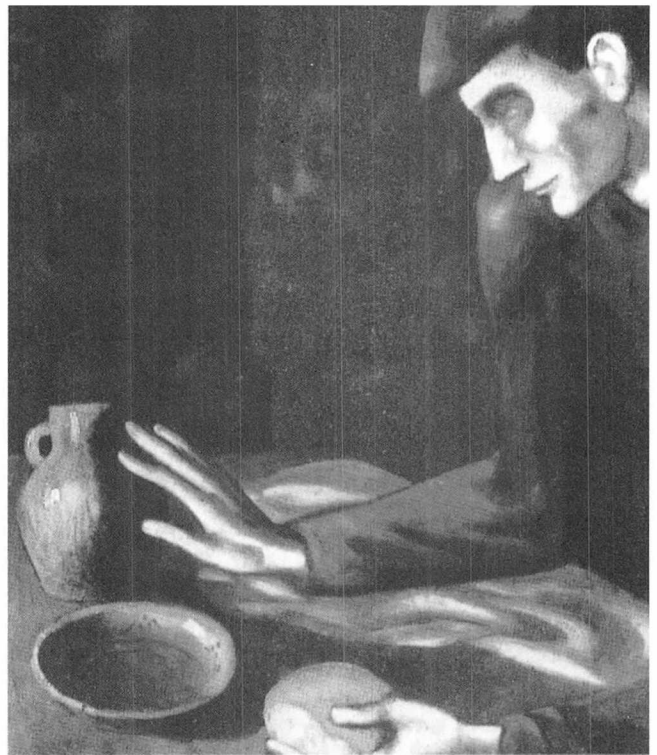
화가들이 색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인상주의 이후부터다. 그 전까지 화가들은 자연 속의 물체가 그림 속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형태와 색채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에 감히 도전하지 못했다. 이런 색채 묘사의 혁명을 일으킨 최초의 화가는 마네였다. 그는 옥외에서 자연을 보면 각각의 대상이 고유한 색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나 정신 속에서 밝은 색조가 뒤섞이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네의 그림 <발코니>는 이런 생각들을 증명해준다. 이 그림에 표현된 인물 세명의 얼굴은 평면적으로 보인다. 그 전의 화가들은 명암을 통해 인물들의 입체감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마네의 그림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인물은 코도 튀어나오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환한 햇빛 속에서 둥근 형태는 평평하게 보이는 법이다. 마네가 노린 효과는 이것이었다. 그러나 이 그림의 전체적인 인상은 오히려 입체적이다. 색의 조화에 관한 전통적인 규칙들을 무시하고 난간은 화면 전체를 가로지르며 밝은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 결과 이 난간은 그림 전면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네 이후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사물의 색채를 감지하려고 노력한다. 이제 색은 사물의 외형에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나 화가의 정신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게 됐다.

이렇게 시각세계의 색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유독 한가지 색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화가들도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와 빈센트 반 고흐다.

**피카소, 청색과 장밋빛의 시대** 피카소는 시기별로 좋아한 색깔이 다른 화가다. 미술사에서는 1901년부터 1904년까지 시기를 피카소의 '청색시



피카소의 '청색시대' 에 만들어진 <맹인의 식사>는 시각을 잃어버린 맹인의 절망감이 진하게 배어났다.

대' 라고 부른다. 이 시기에 피카소는 모든 것을 청색으로 봤다. 마치 그와 세계 사이에 청색 셀로판지가 놓여 있는 것처럼. 그가 사용한 다양한 청색들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었다. 각각의 청색은 특별하고도 개별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청색은 밤의 색이고 바다의 색이며 하늘의 색이다. 붉은색과 노란색이 생명, 태양, 열기로 표현하는 따뜻한 색이라면, 청색은 깊고 차가우며 허무주의와 빈곤, 절망감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색이었다. 그의 1903년작 <맹인의 식사>는 물병과 빵을 제외하고는 인물과 모든 사물이 청색으로 표현돼 있다. 우리는 푸른색으로 표현된 그의 눈부위에서 시각을 잃어버린 맹인의 깊은 절망감을 느낄 수 있다.

1904년부터 1906년까지 피카소의 그림에는 황갈색과 창백한 장밋빛이 등장한다. 이 시기가 피카소의 '장밋빛 시대'다. 이 시기에 피카소의 화풍에 자주 등장하던 인물들은 주로 곡예사, 서커스단원, 소외받고 상처 입기 쉬운 예술가 등이었는데, 이런 색채들은 그의 화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부드러움과 연약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피카소의 유명한 명작 <게르니카>의 주조를 이루는 색채는 흰색과 검은색이다. 이 작품에서 피카소는 전쟁, 맹목적인 폭력, 어린 아이들의 죽음, 어머니들의 고통 등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보편적 비극을 초상, 장례의 색채로 그려내기 위해 흰색과 검은색으로 그림의 색을 한정짓고 있다.

**고흐, 태양과 노란색의 화가** "새로운 구상을 하나 했는데, 대략 다 음과 같은 것이야... 이번에는 단순히 내 침실을 그리기로 했지. 단순히 색채만으로 모든 것을 해내고자 하네. 색채를 단순화함으로써 방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에 장엄한 양식을 부여하려 하는데, 여기서 색채로 휴식 또는 수면을 암시하려 하네. 한마디로 말해 이 그림을 보고 두뇌 또는 상상력을 휴면시킬 수 있도록.”

〈반 고흐의 침실〉이라는 작품을 구상하면서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는 고흐가 얼마나 색채에 대해 고민했는지 잘 드러나 있다. 그는 그림에서 색채가 단순히 사물의 외형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 자체의 속성, 즉 사물의 내면에 어떻게 작용할지, 아울러 그림의 내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민하고 있다.

〈해바라기〉나 〈아를의 밀밭〉 〈까마귀가 있는 보리밭〉 등에서 보듯 고흐의 그림에는 노란색이 많이 등장한다. 〈반 고흐의 침실〉에서도 역시 노란색은 침대와 의자, 창문에서 강렬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 하숙집의 외부는 실제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햇빛이 잘 드는 집이었다. 이 하숙집에서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그가 만년에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을 때 두번이나 이 노란 집 그림을 복제했을 정도로 이 노란 집을 사랑했다.

고흐에게 노란색은 '태양의 색채'다. 햇빛 풍부한 남부 프랑스 아를에 와서 고흐는 누이에게 보내는 편지에 “요즘 내가 사용하는 색상은 하늘색, 황색, 분홍색, 붉은색, 진노랑색, 진초록, 밝은 포도주색, 보라색 등으로 훨씬 더 선명해졌다”고 썼다. 아를에 와서 그림에 대한 그의 열정은 더욱더 강렬해졌다. 태양 같은 그의 삶과 그림에 대한 열정을 화폭에 표현하기에는 꿈틀거리는 듯한 붓터치와 선명한 노란색만큼 더 좋은 것이 없었을 것이다.

**‘원색의 미술사’ 마티스, 특정한 색채에 집착하지는 않았지만 색으로 질서를 부여하다** — 자신만의 색채이론으로 시각적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부여한 화가들도 있었다. 마티스는 ‘원색의 미술사’라고 불릴 만큼 원색을 좋아하는 화가다. 마티스가 이렇게 대답하게 그의 그림에서 원색을 구사한 것은 혼란스럽기 쉬운 화풍에 냉철하고 풍부한 지성으로 적절한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는 그의 그림들을 통해 인상과 와는 또 다른 시각에서 빛과 색을 찾아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붉은 조화/식탁〉에서 붉은색은 색채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준다. 그림은 좌측 윗쪽의 창문과 방안으로 구성된다. 창밖은 파랑과 녹색으로 온통 붉은 색인 방안과 대조된다. 방안의 붉은색은 바닥과 식탁보와 벽을 뒤덮고 있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보일 듯 말 듯한 선과 검은색 테두리를 한 파란색 꽃무늬 장식이다. 마티스의 색채이론은 강렬한 대조관계와 유사관계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색채의 임의적인 분산을 방지하는 최선의 길은 색과 감각 사이에 아무 것도 끼어들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붉은 조화/식탁〉의 붉은색은 색과 감각 사이를 갈라놓는 순수한 붉은색이다.

**뒤피, 묘사적 기능에서 벗어난 색채의 새로운 시각** — 라울 뒤피 역시 자신만의 색채이론을 완성시켰다. 이 이론은 가

시적인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에 근거한 것으로, 색채는 단순히 묘사적 기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작품 〈검은 화물선〉은 검은색을 중심 모티브로 하는데, 검은색 위에 밝은 초록색으로 화물선 모양이 단순화된 선으로 그려져 있고, 검은색 주변으로 푸른색 등이 주변 색조를 이루고 있다. 뒤피에게 강렬한 검은색은 절정에 이른 태양이 내뿜는 절대적인 빛의 영역에 해당한다. 이 그림은 채색된 여러 요소들이 캔버스를 가득 채우고 있음에도 감상하는 이의 시선을 검은 색도(色度)의 경계를 이루는 화물선 내부로 끌어들이는。

뒤피의 또다른 대표작 〈바이올린이 있는 정물〉은 온통 붉은색 화면으로 타오르고 있다. 바이올린과 악보를 제외한 방안의 모든 부분은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다. 붉은 바탕은 이 그림에서 강렬한 변주를 이루는데, 그 위로 아라베스크 꽃무늬들이 마치 바이올린 선율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고흐가 그린 〈반 고흐의 침실〉에서 노란색은 사물 자체의 속성을 강렬하게 표현한다.

이밖에도 색채에 관한 화가들의 표정은 다양하다. 르누아르는 밝은 색으로 입체감을 표현하고 모든 자연과 사물에 대한 현실감을 부여함으로써, 인상과 형식이 그에 이르러 풍부한 의미를 얻게 됐다고 평가받는다. 보나르의 그림들은 “색채는 움직인다”는 그의 말처럼, 그가 주로 그린 일상적인 주제들이 색채의 리듬에 따라 변모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샤갈은 그의 그림들에서 다양한 색채를 몽환적이고 초자연적인 색감으로 바꿔놓기도 한다. 인위적인 색채에 만족하지 못하고 황금 가루를 이용해 그림을 그린 클림트 같은 화가도 있었다. — 김장근 기자